

전남 인구감소 지역 ‘생활인구 제도’ 효과 있네

지난해 3분기 생활인구, 체류인구보다 4.9배 많아
여름휴가·명절 끼었지만 도·지자체 노력 반영된 듯

여름 휴가철인 지난해 8월 전남지역 인구감소지역을 찾은 생활 인구들이 등록 인구보다 4.9배나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인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을 비롯해 월 1회 또는 하루 3시간 이상 해당 지역에 체류한 체류인구로 구성된다.

지역 내 인구특성은 물론 체류 유형별 특징과 소비성향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지자체가 맞춤형 시책을 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전남에서는 16개 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는데, 3분기 체류인구 배수는 2분기(4.3배)보다 늘어났다. 물론 이 기간 추석명절과 여름휴가 기간이 포함됐지만, ‘생활인구’(체류인구+등록인구)를 늘리는데 총력을 기하고 있는 전남도와 각 지자체

체의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31일 ‘2024년 2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 따르면 전남 소재 인구감소지역 16개 시군의 생활인구는 지난 8월 기준 415만7335명으로 집계됐다. 체류인구는 346만1179명, 등록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해 69만6157명이었다.
체류인구는 지난해 2분기(300만2000명)보다 늘었고 등록인구(70만1000명) 감소했다.
전남 인구감소지역은 구례·담양·곡성·영광·화순·보성·고흥·장흥·강진·함평·영암·해남·장성·완도·진도·신안 등이다. 지난해 3분기 전남 체류인구 비

중을 지역별로 보면 구례가 10.25배로 가장 높았고 담양이 9.4배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장성(5.5배), 곡성(5.5배), 화순(5.2배), 곡성(5.4배), 장성(5.4배), 보성(5.2배) 등도 5배 이상을 기록했다.
전남은 재방문율과 평균 체류일수, 평균 숙박일수 등 5개 특성에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평균값을 상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3분기 전남지역 재방문율은 36.1%로 전국 평균(33.1%) 대비 3%포인트 높았고, 평균 숙박일수도 전국 평균보다 0.4일 긴 3.6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전남을 가장 많이 찾은 관광객은 광

주시 북구와 광산구, 서구 주민들로 전남과 인접한 광주시민들이었다.
지난 3분기 전남 체류인구가 사용한 평균 카드액은 7월 11만9000원, 8월 11만3000원, 9월 10만7000원으로 전국 평균과 같거나 많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의 주민등록·외국인등록 자료와 통신 3사(SKT·KT·LG U+), 카드 4사(신한·BC·삼성·하나), 신용정보사 등 10개 기관의 자료를 가명결합한 결과다. 통계청은 해당 자료들을 기반으로 지역별 생활인구, 체류인구 규모, 인구감소지역 활동 특성, 소비 특성 등을 분석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도 ‘청소년 노벨캠프·지역사회 연구 프로젝트’ 성료

전남과학고·전남조리과학고 대상

전남과학고와 전남조리과학고 학생들이 전남도가 주최하는 ‘2024년 청소년 노벨캠프·지역사회 연구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진행된 청소년 연구 프로젝트 성과발표회에서 전남과학고 ‘MOF청정기’ 팀과 전남조리과학고 ‘로드트립’ 팀이 대상을 차지했다. <사진>
노벨캠프·지역사회 연구 프로젝트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인문사회 및 과학연구 경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27개 학교 학생들은 각 연구주제를 놓고 8개월간 연구를 진행했다. 이후 1차 연구과제 보고서 심사를 통해 분야별 10개 우수팀을 선정하고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가렸다.
대상을 차지한 ‘MOF청정기’ 팀은 플라스틱 코팅 분해에 관여하는 세균을 식별하기 위한 기법을, ‘로드트립’ 팀은 지역축제 길거리 음식 상품화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최우수상은 전남과학고 ‘ETA’ 팀, 영암 삼호고 ‘오리날다’ 팀이 차지했고, 우수상에는 광양백운고 ‘아이티지’ 팀, 순천매산고 ‘청순사탐’ 팀이 선정됐다. 장려상은 순천매산여고 ‘NSNL’ 팀, 중마고 ‘디지톡’ 팀, 문태고 ‘세이프페이퍼’ 팀, 장성고 ‘지리는 브랜딩’ 팀이 받았다.

전남과학고 3학년 문희신 학생은 “이번 연구를 통해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는 과정을 경험했다”며 “연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팀원들과 힘을 합쳐 해결하면서 한층 성장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개발공사 100억 배당...책임경영 실현

10년 연속 흑자 달성...지방 공기업 중 재무 건전성 최고

전남 유일의 공기업 전남개발공사가 공사 창립 이래 처음으로 전남도에 100억원을 배당기로 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 290억원을 올리고 10년 연속 흑자 달성에 성공한 데 따른 것으로, 전남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적 자립을 이끌어가는 핵심 공기업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달 28일 열린 제174회 이사회에서 2024년도 당기순이익 290억원 중 100억원의 배당을 의결, 결정했다.
공사는 이 같은 성과가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과 성과관리 체계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높은 분양도지 판매 실적을 기록했고, 이익 감소 요인을 사전에 예측하는 리스크 관리 고도화를 벌였다. 또 사업별 공정을 관리, 철저한 원가심사 등 재무관리를 강화했다.
지난해 기준 전남개발공사 부채비율은 26%로 창립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금융부채비율은 14%로, 지방 공기업 중 최고 수준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개발공사는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한다는 목표로 2021년부터 당기순이익의 10%를 기부, 지금까지 총 218억원을 전남도에 기부했다. 기부금은 지역인재육성과 문화예술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전문성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한 사장의 리더십과 직원들의 변화·혁신 의지도 성과를 내는 데 한 몫을 했다는 게 전남도 안팎의 분석이다.
장충모<사진>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창립 이래 첫 배당을 실현, 도민과 함께 성장하는 지방공기업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며 “이번 배당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도,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22개 선정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등

전남도가 올해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22개 사업을 선정, 추진한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2025년 제2회 전남도 양성평등위원회’를 통해 22개 양성평등 기금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공모사업은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양성평등한 환경 조성! 우리 다함께’ ▲곡단아띠 ‘유아를 위한 양성평등 인형극’ ▲전남여성정책포럼 ‘양성평등의 길, 전남정책제안 콜로키움’ 등이다.
명칭한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사회단체·지역기업·대학 등 전문가로 구성된 양성평등위원회는 공모에 접수한 34개 사업을 두고 기금 사용 목적, 사업의 적정성, 사업 수행 능력 등을 검토해 22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단체들은 사업 기획, 실행, 평가까지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게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양성평등은 단순히 제도에 그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일상적인 삶에서 실현되어야

하며, 이 자리가 그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성평등한 문화가 더욱 확산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모두가 행복한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2025년생 아이 ‘책 꾸러미’ 선물 받으세요

도립도서관 누리집 신청

전남도립도서관이 올해 출생한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책 꾸러미를 전달하는 ‘2025 행복한 출산을 응원하는 첫 책 선물 사업’을 시작한다.
전남에 주소를 둔 2025년 출생아를 대상으로 하며 유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그림책 2권과 육아와 도서 전문가가 선정한 양육자책 1권을 담아 전달한다. 꾸러미에는 또 전남도의 출산육아 지원 정보가 담긴 안내문과 건강 작가의 ‘괜찮아’ 시가 담긴 엽서가 동봉된다.
책 꾸러미 신청은 1일부터 전남도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꾸러미는 신청자 자

택으로 택배를 통해 전달된다.
전남도립도서관은 부모와 아기가 책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부모교육특강’, ‘부모 교육영상 제공’, ‘아기를 위한 오감 책놀이’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육아 정보와 독서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다.
전남도립도서관 관계자는 “첫 책 선물 사업을 통해 가정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책 읽는 문화가 시작되길 바란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을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도립도서관 누리집(https://lib.jeonnam.go.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61-288-5231)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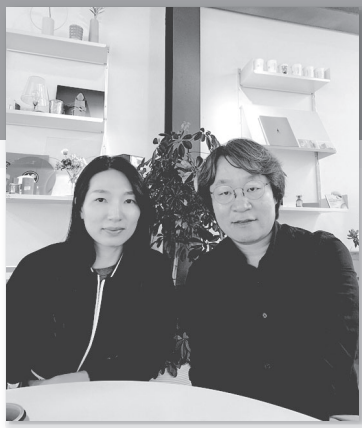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